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3/8/5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방사에 대한 의견은?

2009년 제주에서 불법 포획된 후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 쇼를 하던 남방큰돌고래 '제돌이'가 지난 7월 18일 제주 앞바다에 방사됐습니다.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를 불법 포획한 것은 잘못이지만 쇼를 통해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주던 돌고래를 큰 돈(서울시 예산 7억 5천만 원)을 들여 방사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7월 29일부터 8월 1일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30명을 대상으로 돌고래 방사, 돌고래 쇼 존속에 대한 의견 등을 알아봤습니다.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2013년 7월 29일~8월 1일(4일간)
2.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3.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
4.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230명
5. 표본오차: $\pm 2.8\%$ 포인트(95% 신뢰수준)
6. 응답률: 16%(총 통화 7,595명 중 1,230명 응답 완료)
7. 의뢰기관: 한국갤럽 자체조사

주요 결과

- 돈을 들여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낸 것에 대한 찬반은?: '찬성' 52% vs. '반대' 35%
- '오늘 이전에 돌고래 쇼를 본 적 있다': 62%
- 앞으로 돌고래 쇼는?: '그만해야 한다' 59% vs. '계속해야 한다' 31%

돈을 들여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낸 것에 대한 찬반은?: '찬성' 52% vs. '반대' 35%

한국갤럽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30명에게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 쇼를 하던 돌고래를 원래 고향인 제주도 앞바다에 큰 돈을 들여 돌려보낸 것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52%가 찬성했고, 35%가 반대해,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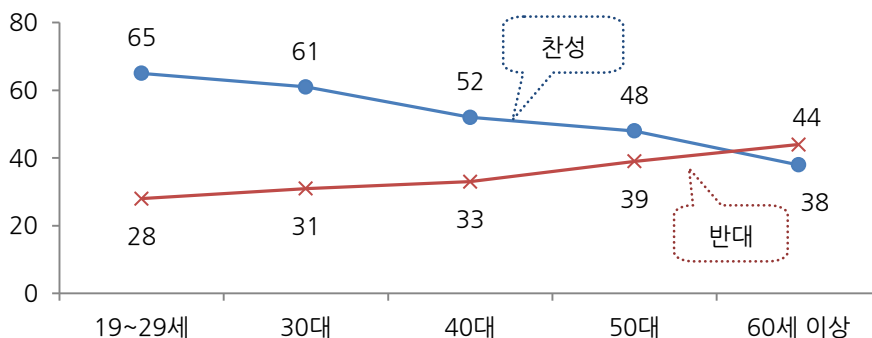
이번 돌고래 방사에 대해서는 성별 의견 차는 거의 없었고,
연령별로는 저연령일수록 찬성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60세 이상에서만 유일하게 반대(44%) 의견이 찬성(38%)보다 많았다.

▶ 돌고래 방사에 대한 찬반은? (단위: %)

구분		표본수(명)	찬성	반대	모름/ 응답거절
전체		1,230	52	35	12
성별	남성	609	51	36	12
	여성	621	54	34	12
연령별	19~29세	225	65	28	7
	30대	244	61	31	8
	40대	271	52	33	15
	50대	236	48	39	13
	60세 이상	253	38	44	18

질문) 최근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 쇼를 하던 돌고래를 원래 고향인 제주도 앞바다로 돌려보냈는데요, 그 비용으로 7억 5천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귀하는 돈을 들여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낸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큰 비용을 들인 돌고래 방사에 대해 연령별 의견 차이 보여



‘오늘 이전에 돌고래 쇼를 본 적 있다’: 62%

오늘 이전에 돌고래 쇼를 본 적 있는 사람은 62%로,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이 돌고래 쇼 관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고래 쇼 관람 경험은 여성(66%)이 남성(59%)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40대에서 74%로 가장 많았다.

▶ 돌고래 쇼를 본 적 있는가? (단위: %)

구분		표본수(명)	본 적 있다	본 적 없다
전체		1,230	62	38
성별	남성	609	59	41
	여성	621	66	34
연령별	19~29세	225	52	48
	30대	244	61	39
	40대	271	74	26
	50대	236	68	32
	60세 이상	253	56	44

질문) 귀하께서는 오늘 이전에 돌고래 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돌고래 쇼는?: ‘그만해야 한다’ 59% vs. ‘계속해야 한다’ 31%

제돌이와 같은 남방큰돌고래는 멸종위기종으로 불법 포획한 돌고래를 이용한 것이 문제가 되므로 돌고래 쇼를 그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주고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자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도 있으므로 돌고래 쇼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돌고래 쇼 존속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 59%는 ‘그만해야 한다’, 31%는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해, 돌고래 쇼 폐지 의견이 더 많았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돌고래 쇼를 그만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55%)보다 여성(63%)에서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저연령일수록 폐지 의견이 우세해 20대에서는 78%에 달했으며
60세 이상에서만 ‘그만해야 한다’(41%)와 ‘계속해야 한다’(43%)로 의견이 양분됐다.

한편 돌고래 쇼 관람 경험자(769명)에서도 그만해야 한다는 의견(55%)이 더 많았다.

그간 돌고래 방사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찬반 논란이 이어져 왔으나, 지난 7월 18일 방사 후 2주가 경과한 현재 여론은 찬성이 반대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 돌고래 쇼 존속 여부 질문에서도 폐지론 쪽에 훨씬 더 힘이 실렸다. 이번 돌고래 방사는 생명 존중과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을 뿐 아니라 한국인의 인식 변화를 가져 온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동물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4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후 귀추가 주목된다.

▶ 돌고래 쇼 존속에 대한 의견은? (단위: %)

구분		표본수(명)	그만해야 한다	계속해야 한다	모름/ 응답거절
전체		1,230	59	31	10
성별	남성	609	55	34	10
	여성	621	63	28	10
연령별	19~29세	225	78	18	3
	30대	244	65	25	10
	40대	271	63	30	7
	50대	236	50	38	13
	60세 이상	253	41	43	16
돌고래 쇼 관람 경험	본 적 있다	769	55	37	8
	본 적 없다	461	66	21	13

질문) 불법 포획된 돌고래를 이용하기 때문에 돌고래 쇼를 그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주기 때문에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앞으로 돌고래 쇼를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의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장덕현 부장 02-3702-2571 dhjang@gallup.co.kr